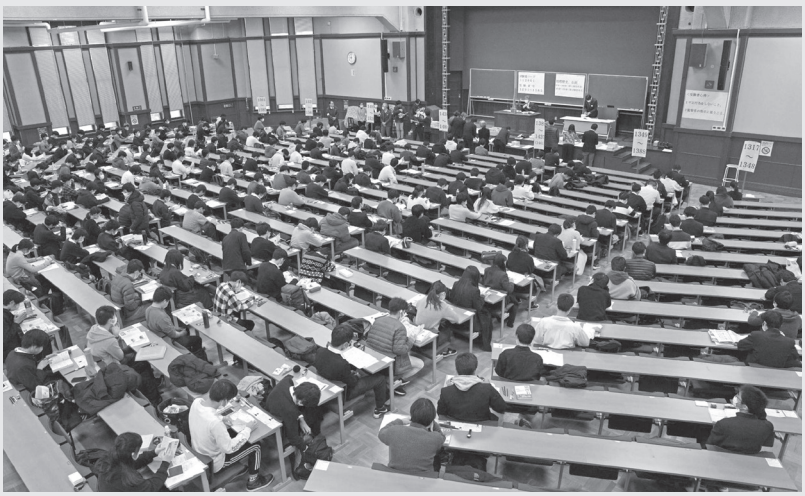
7/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정인관



일본 도쿄대학 대학입학시험장 모습(2022년)

출처:https://www.japantimes.co.jp/news/2022/01/15/national/university-entrance-exams-begin/

정인관(鄭仁瓘)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부전공은 사회불평등과 사회이동, 교육사회학 및 양적방법론이다. 현재 동아시아 3개국(한국, 대만, 일본)의 사회이동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사회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논문으로는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https://doi.org/10.29154/ILBI.2022.26.198

1. 들어가며: 논의의 배경

현대사회에서 교육기관은 사회화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지식의 공급을 통해 그것을 습득한 개인이 한 사회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근대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하였으나, 20세기를 거치며 교육기회의 급격한 확대가 나타나 문자 그대로 대중교육(mass education)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교육 출현의 바탕에는 교육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증대와 더불어 그것이 공공재라는 인식의 보편화가 놓여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증대시킴을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은 문자해독력과 같은 기초적인 차원에서부터 단순한 기술의 습득,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으며 해당 지식의 습득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구체적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점차 연장되는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 보편화되었고,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교육(주로 고등교육으로 불리는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어났다. 많은 국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등교육의 확대는 서로 맞물려 나타났고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평균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고등교육의 확대에 따라 그것을 이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교육과 사회경제적 성취 사이의 정적인 연관성이 커지기도 했다. 특히 능력주의(meritocracy) 담론의 확산은 교육성취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지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성취에 따른 분배의 차등(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학력사회'(credential society)가 나타난 것이다.[1]

1 Randall Collins, *Credential Socie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사회과학, 그중에서도 사회학이 사회현상의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학문임을 고려할 때 교육기회의 팽창과 그것의 격차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20세기 (고등)교육의 팽창이 교육기회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개인의 교육 성취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사회적 재생산의 통로가 된다는 비판도 지속되었고, 실제로 교육기회의 증대가 부모-자식 사이의 세대 간 사회경제적 유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 역시 이뤄지고 있다(부르디외).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이 가져온 결과의 차이(이 두 가지를 본고에서는 '교육격차'로 명명한다), 그리고 사회이동의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한 사회의 기회구조를 논의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노력이 아닌 타고난 조건에 의해 사회경제적 종착점이 결정되는 사회를 닫힌 사회로, 개인의 종착점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할 때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정의롭다는 것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의 성취도, 또 그것에 의해 개인의 성취가 완벽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극단은 가설적으로 존재할 뿐 거의 모든 국가들은 이 양 극단 사이의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에 따라 '열림'과 '닫힘'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나 허용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개별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은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개방성의 현황을 진단하고 사회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교육격차 및 사회이동과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들이 개별 국가의 현황 분석을 넘어 비교연구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특히 지리적 위치나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비교는 현황에 대한 평가에 더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동아시아의 3개국(한국, 일본, 대만)은 20세기 후반에 걸친 급격한 산업화와 교육기회의 팽창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의 순서에 있어 일본이 가장 앞섰으며 한국과 대만이 뒤를 따랐다는 시기별 차이, 교육팽창의 규모 및 고용의 관행에 있어 국가별 상이점도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한다.[2] 산업화와 교육기회의 팽창이라고 하는 특성은 사실 이보다 앞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산업화를 수식하고 있는 "급격한"(rapid)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때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산업화가 이뤄진 뒤 교육의 팽창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졌다.[3]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직업구조의 변화와 교육기회의 팽창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경제발전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교육기회가 확충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직업기회와 교육에 있어 이러한 압축적 성장은 적어도 고성장의 시기에 있어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약화시켰다. 모두가 사회경제적인 상승이동을 경험하는 상황은 적어도 자신이 사회경제적으로 사회의 중간 이상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쉽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고도발전 시기 일본인의 다수가 자신을 중간층으로 규정한 현상은 '일억총중류'라는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중산층 귀속의식 역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70~90%를 넘나들었다.[4] 고성장을

2 有田伸, 「比較を通じてみる東アジアの社会階層構造:職業がもたらす報酬格差と社会的不平等」, 『社会学評論』 59巻 4号, 2009.

3 Takehiko Kariya, *Education Reform and Social Class in Japan: The Emerging Incentive Divide*, Routledge, 2012.

4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지나 저성장을 마주한 이들 국가들에서는 점차 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998년 경제학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야키가 『일본의 경제격차』를 발간하며 '격차사회' 논의에 불이 붙었다.[5] 이 시기 사회 전반적으로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는 좌절감이 확산되었다.[6] 이는 사회경제적 보상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요인들(대표적으로 출신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회적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격차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격차가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재생산(reproduction)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 세대에 걸친 재생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는 통시적인 측면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인지보다 평균적으로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고도 발전이 시작되고 대략 30년(한 세대)이 지난 후 세대 간 사회이동의 문제가 쟁점화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국보다 앞서 산업화와 교육팽창을 겪은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는 작업은 역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인접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본다는 자체적인 의미에 더해 한국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예측해 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겪어 온 격차와 사회이동의 구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양국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일반화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두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특히 한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의 상대적 심각성을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 한 가지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 논문의 부제목인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가 알려 주듯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교육불평등과 사회이동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정리하고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데 있다. 이어서 일본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의 경향이 한국과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5 다치바나키 도시야키, 『일본의 경제 격차』, 소화, 2001.
6 사토 도시키, 『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4.

보이는지 간략하게 언급한 뒤, 한일 비교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양국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비교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간략히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부연하자면 이 글은 독자들이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될 것이다.

2. 일본의 교육격차

학력주의(credentialism)란 한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소득의 크기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다.[7] 이러한 학력주의가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학력사회라고 명명할 수 있다.[8] 일본은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중 근대교육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국가이다. 후쿠자와 유이치는 1873년 발표한 저서 『학문의 권장』에서 교육을 통한 자기발전(일신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문맹방지를 위한 의무교육이 1872년 도입되기도 했다. 물론 여전히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계급적으로 갈렸고 중학교 이상의 교육은 사회경제적 상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재에 속했다. 또한 구 교육체제(old educational system)는 계열화(trackin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후 미군정하에서 실시된 신 교육체제(new educational system)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오늘날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혹은 2년)의 6-3-3-4의 교육체계가 자리 잡은 것은 1947년 미군정기에 이르러서였고 이 시기 의무교육은 기존의 소학교 6년에서 중학교까지 9년으로 늘어났

7 하라 준스케 · 세이야마 가즈오, 『일본의 사회계층』, 한울, 2002.
8 Randall Collins, *Credential Society*.

다. 1960~1970년대에 걸쳐 고등학교 교육은 급격히 일반화되었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90% 이상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다. 대학교육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1차, 1985년 이후 특히 1990년대에 2차 성장기를 맞이했고 2000년대에 이르러 비교적 안정적으로 55%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학교육의 확대는 특히 고도성장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자녀의 대학진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보다 넓은 계층에서 줄어든 점을 반영하고 있다. 전후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해당 영역의 자녀들이 농업 외의 직업영역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광범위한 구조적인 기회를 열어 놓았다.[9]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교육수준, 즉 학력은 개인들에게 보다 폭넓은 직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규정하는 통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른바 학력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본에서 학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학력성취의 기회는 어느 정도 평등화되었는가? 또 학력은 어느 정도나 개인의 생활기회를 규정하는가? 이어지는 두 절에서는 각각의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1) 교육기회의 불평등

산업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존재한다. 1993년 출간된 『지속되는 불평등』(*Persistent Inequality*)은 총 13개 국가(미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유럽 9개국)를 대상으로 20세기를 거치며 출생집단(birth cohort)별로 교육기회의 불평등 변화를 탐색한다.[10] 분석결과 모든 국가들이 중등 및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대상이 된 13개 중 11개)의 국가들에서 계층의 영

9 Takehiko Kariya, *Education Reform and Social Class in Japan: The Emerging Incentive Divide*.

10 Yossi Shavit & Hans-Peter Blossfeld,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Westview Press, 1993. 1950년대 이래 서구에서 간행된 국제비교 연구들은 일본의 사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시기 일본이 아시아의 선두주자로 서구 국가들과 경쟁적으로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용한 서베이 자료 구축이 빠르게 이뤄졌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출신계층을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으로 분리해서 보았을 때 아버지 직업의 영향력은 상당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확장이 기회의 평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이후 브린과 동료들의 연구에 의해 반박되었다. '교육성취에 있어 지속되지 않는 불평등'(Nonpersistent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브린과 동료들은 '지속되는 불평등'에서 다뤘던 국가들 중 8개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출신계층에 따른 교육기회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교육기회의 격차가 빠르게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는 특히 농업 및 노동계급의 자녀들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해 저자들은 해당 논문이 '지속되는 불평등'에 비해 보다 큰 샘플 수와 일관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1]

전후 일본인의 절대적 교육수준은 반세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20%대에서 횡보하던 중고등학교 교육 이수비율은 194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상술한 것처럼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대학교육의 경우 1960년대 초 이수자의 비율이 10%였으나 1970년대 중반까지 약 40%대로 급성장한 뒤 1980년대 중반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85년 대학정원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되면서 2000년에 이르면 그 비율이 50% 중반까지 증가한다. 일본에서 교육격차의 현황과 경향성에 대한 연구는 1955년 이래 10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의 전국조사(SSM: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Survey)의 분석결과에 기반하고 있는데. 1955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5개의 SSM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는 출신 계층에 따른 남성

11 Richard Breen et al., "Nonpersistent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Eight Europe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5), 2009.

들의 고교 진학률의 차이가 40년 사이 대폭 축소되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부모가 전문직인 경우와 블루칼라 노동자인 경우를 비교했을 때 고교진학률의 차이는 1955년에는 약 70%에 달했으나 그 격차는 1995년에는 10%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단기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률 격차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유사하게 1955년에서 2005년까지의 SSM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학진학 가능인구 중 절반 정도가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는데, 화이트칼라 배경 자녀의 경우 79%, 소매 서비스 업종 자녀는 59%, 블루칼라와 농업 종사자 자녀의 경우는 44%가량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진학률 차이는 50여 년 사이에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고등학교 진학률과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기초재와 상급재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은 1970년대에 이르면 기초재의 성격을 지녀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학 교육의 경우 여전히 상급재로서 계층적 차이가 드러나는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래프터리와 하우트가 개념화한 '극대화된 불평등 유지'(MMI: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해당 가설에 따르면 상층계급과 하층계급 사이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는 해당 교육에 대해 상층계급이 포화상태일 때만 감소한다.[14]

그렇다면 개인의 교육성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정배경의 효과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개인의 교육성취를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총 교육년 수, 상급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여부, 학교 성적 등이 분석대상으로 활용된다. 그중에서도 상급학교로의 진학여부는 대표적인 학업성취의 지표로 꼽힌다. 1975년 SSM자료를 이용하여 1906년부터 1955년

12 하라 준스케 · 세이야마 가즈오, 『일본의 사회계층』.

13 Junske Hara, "An Overview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Study in Japan: Towards a 'Mature' Society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9(1), 2011.

14 Adrian Raftery & Michael Hout,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1993.

사이 출생한 사람들을 10년 단위 5개 집단으로 나눠 분석한 연구는 교육성취에 있어 가정배경의 전반적인 효과는 중등교육의 팽창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중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약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배경에 따른 소학교에서 중등교육으로, 중등교육에서 대학교육으로의 전환 가능성의 상대적인 격차는 놀라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15] 1967년도에 수행된 '직업 위세 조사'(Occupational Prestige Survey) 역시 가족배경의 효과가 교육성취와 초기 직업의 획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6] 이렇듯 교육의 팽창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병존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회적 쟁점이 되지 않았던 것은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일본의 가파른 경제성장의 혜택을 다수의 국민들이 받고 있었고, 그 안에서 교육기회의 격차가 가져오는 결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955년 SSM조사에서부터 1975년 SSM조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사회경제적인 중간층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높아졌고 1975년에는 약 75%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 간부 등 고위직에 있어서도 도쿄대를 비롯한 최상위 대학의 독점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업적주의적인 사회분위기 역시 사회가 일정 부분 평등화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17]

교육기회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후 중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수직적 불평등(vertical inequality)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의 수평적 불평등(horizontal inequality)의 문제는 지속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보다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중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등교육의 서열화 현상이 나타난 것

15 Donald Treiman & Kazuo Yamaguchi,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Japan," *Persistent Inequality* (edited by Yossi Shavit and Hans-Peter Blossfeld), Westview Press, 1993.

16 Junske Hara, "An Overview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Study in Japan: Towards a 'Mature' Society Perspective."

17 Takehiko Kariya, *Education Reform and Social Class in Japan: The Emerging Incentive Divide*.

이다.[18] 특히 고등학교 입시에 있어 중학교 성적과 입학시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1970년대부터 입시과외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사회학자 루카스(Samuel Lucas)는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불평등'(EMI: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가설에서 교육연수로 측정되는 양적인 평등이 질적인 불평등을 가려 버리는 문제에 주목한다.[19] 즉 상층 학부모의 경우 점차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교육연수를 획득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질적인 차이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입시에 보다 유리한 학교에 보내려는, 높은 과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상층의 전략은 이런 측면에서 수평적 차별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 이래 정부가 내놓은 전략은 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교육기회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립 고등학교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60년대 중반부터 확대해 온 소학군제와 고교평준화 정책은 의도치 않게 우수한 학생들이 사립고등학교로 대거 진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립학교 입시비용과 등록금을 고려할 때 진학과 가정배경의 상관성이 오히려 증대된 것으로 평준화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실시된 '유토리'(yutori)교육(1989년) 정책은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공부 의욕을 약화시켰고, 1997년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교육시간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계급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즉 제도권에서 이뤄지는 절대적인 교육의 양(교육시간)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부분을 채울 의지가 있고, 채울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의지와 자원은 결국 청소년들의 가계경제적 배경을 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학력의 새로운 개념'이라는 개념하에 다원적

18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등학교의 유형(인문계와 실업계)과 순위의 두 축으로 나뉜다고 하겠다.

19 Samuel Lucas,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2001.

인 능력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기도 했다. 자기책임과 자기선택에 대한 강조는 평등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평등 개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강조는 강한 개인을 강조함으로써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개인의 몫으로 돌린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학업성취에 있어 가정배경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부모의 학력을 포함하는 가정의 문화자본과 자녀의 교육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자본은 그러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태도(의욕)의 차이, 즉 '인센티브 디바이드'(incentive divide)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20] 실제 1979년과 1997년의 두 자료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평균적인 교육시간은 모든 계층에서 줄어들었으나 그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배경에 따라 교육시간의 낙폭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는 학습에 대한 노력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의 차이가 개인의 배경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교육수준이 부모보다 낮아지는 것을 위험으로 보고 그것을 회피(risk aversion)하려는 태도 역시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 성취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21] 특히 이러한 기제는 동일한 학업능력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도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의 차이를 경유하는 불평등의 형성과는 차이를 보인다.[22]

중학교 성적에 있어서도 1956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10년 단위의 세 출생집단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가정배경이 설명하는 부분이 증가하는데, 특히 아버지의 직업으로 대표되는 가정배경

20 김미란, 「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0권 2호, 2010.

21 Richard Breen & John Goldthorpe,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 and Society* 9(3), 1997.

22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능력의 차이를 통한 진학의 격차를 1차 효과(primary effect), 학습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남는 가정배경의 효과를 2차 효과(secondary effect)로 부른다. Michelle Jackson, ed., *Determined to succeed: Performance versus Choice in Educational Attainment*, Stanford, 2013.

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고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이 증가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23] 1942년 이전, 1942~1957년생, 1958~1967년생, 그리고 1968~1980년생에 있어 대학진학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 역시 대학진학에 있어 가정 배경의 중요성이 최근 코호트에 와서 증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24] 1926~1935년에서 1976~1986년까지 6개의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가정배경으로 놓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아버지의 절대적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교육년 수 차이는 1956~1965년 출생자까지 감소한 뒤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기에 따른 교육분포의 차이를 고려한 아버지의 상대적 교육수준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자인 아버지와 대학 졸업자 아버지를 둔 자녀 사이의 학력격차는 최근 출생집단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 SSM조사의 2005년과 2015년 합본자료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역시 대학진학에 있어 개인의 학력요인을 통제해도 출신계층의 영향력이 잔존함을 밝히고 있다.[26] 특히 남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미치는 효과는 대학교육이 2차 팽창을 경험한 1991년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특히 어머니 교육의 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상의 발견은 조금 거칠지만 일본 사회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더욱 커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0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 사토 도시키의 『불평등 사회, 일본』에서 저자는 오늘날 고학력 엘리트들이 온전히 노력에 따른 실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부모(특히 아버지)의 학력을 물려받은 결과 나타난 것임을 강조한다. 학력은 하나의 자산이며, 엘리트들은

23 Takehiko Kariya, *Education Reform and Social Class in Japan: The Emerging Incentive Divide*.

24 Hiroshi Ishida, "Japan: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to Access to Higher Education,"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Stanford, 2007.

25 Sho Fujihara & Hiroshi Ishida, "The Absolute and Relative Values of Education and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3, 2016.

26 豊永耕平, 「高等教育の大衆化と大学進学の不平等」, 『年報社会学論集』 33号, 2020.

점차 그러한 자산의 상속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다.[27]

2) 교육격차의 결과들

그렇다면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왜 문제가 되는가? 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기회가 배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상황이 특별히 심각성을 지니는 까닭은 학력이 사회경제적인 보상과 밀접한 상관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다. 학력이 어느 정도나 개인의 삶의 기회를 규정하는가? 그리고 학력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보상이 맺는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것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립셋과 벤딕스를 비롯한 이들이 주창한 산업화론에 따르면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계층배경이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며 그 결과 계층 간 격차는 감소하게 된다.[28] 계층 배경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것이 교육이다. 즉,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교육이 직업획득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저학력사회였던 시절의 일본에서는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계층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동했다. 그러다가 사회 전반의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이 일반화되면서 역설적으로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계층)를 결정하는 정도는 약해지고 부모의 계층에 따라 자녀의 계층이 결정되는 현상이 심해졌다고 하는 것이 격차사회론의 주창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이다.[29] 학력과 직업의 연관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그럼에도 확정적인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사토 도시키는 『불평등 사회, 일본』에서 1955년에서 1995년까지의 SSM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남성에게서 학력과 직업의 연관성은 놀라울 정도로 안

27 사토 도시키, 『불평등 사회, 일본』.
28 Seymour Martin Lipset & Reinhard Bendix,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Routledge, 2017.
29 다치바나키 도시야키, 『일본의 경제 격차』.

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1955년에서 2005년까지의 SSM자료를 분석한 이시다 히로시와 미와 사토시의 연구 역시 교육성취와 도달계급 사이의 연관성이 1955년에서 1965년 사이 다소 약화되나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보이고 있다.[30] 물론 이러한 발견들은 연구에 따른 학력과 자녀의 도달계급 구분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데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사회에서 교육격차를 둘러싼 문제는 구성원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이 그것을 축으로 차등적으로 나타날 때 특히 예민한 쟁점이 된다. 원래 일본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회였다. 빠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하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안정적이고 평생 고용이 가능한 직장에 취업이 가능했던 시기가 오래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임금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은 근속년 수였다.[31] 또한 직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존재했다. 평생고용제도와 폭넓은 복지는 주로 대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및 근무안정성은 큰 차이를 보여 왔다.[32] 그러나 이 시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이직률도 높았으며,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사이의 횡단 역시 어렵지 않았다. 취업기회에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엘리트들도 고등학교 성적을 기반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폭넓게 제도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제는 1980년대까지도 잘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33]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장기불황 이후 바뀌게 된다. 이 시기 일본에서

30 Hiroshi Ishida & Satoshi Miwa, "Trends in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and Education in Japan," Hiroshi Ishida, eds.,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Late-Industrializing Countries*, The 2005 SSM Research Committee, 2008.

31 Mary Brinton, *Lost in Transition*, Cambridge, 2008.

32 有田伸,「比較を通じてみる東アジアの社会階層構造: 職業がもたらす報酬格差と社会的不平等」.

33 Takehiko Kariya,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to Work in Japan: Meritocracy through Institutional and Semi-Institutional Linkages," Yossi Shavit & Walter Muller, eds.,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Clarendon Press Oxford, 1998.

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했고, 빈곤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34] 그리고 비정규직과 빈곤층으로의 전락 등 사회적 약자가 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즉, 교육수준에 따른 계층화가 심화된 것이다.[35] 한쪽에서는 교육수준의 차별화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보다 이름 있는 대학에 가려는 노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모습이 보다 가시화되었다. 이는 상술한 1980~1990년대 교육개혁 아래에서 자라난 청년들에게서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중노동시장이 더욱 공고해져 대기업과 공공영역을 아우르는 정규직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안정성과 보상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쟁점이 되었다.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점차 어려워지는 반면 공공기관의 근속기간은 길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학력에 따른 직업기회의 격차가 커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는 고정화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일본, 한국, 대만 3국의 자료[36]를 사용하여 개인 소득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개인소득의 결정에 있어 학력의 역할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에서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남성이 경우 기업체 규모와 연령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발견은 바로 앞에서 말한 교육의 중요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이다. 상술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학력 자체가 직접적으로 임금에 영향을 끼치기보단 큰 기업체에 입사하고 해당 기업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이 임금결정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대학교육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1970~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대기업에 들어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있어 정규직 근속경력

34 森口千晶,「日本は「格差社会」になったのか: 比較経済史にみる日本の所得格差」,『経済研究』68巻 2号, 2017.

35 Yoshimichi Sato, "Stability and Increasing Fluidity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al Stratification System," *Contemporary Japan* 22, 2010.

36 2005년 SSM 조사는 일본, 한국, 대만 3개국에서 함께 실시되었다.

이 어려워지거나 짧아지고, 이것이 저임금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추천제로 대표되는 고등학교와 기업 사이의 제도적 연결도 급속히 약화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안정적 직장이행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 결과 저학력자들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 프리터(freeter)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37] 즉, 대학졸업자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저학력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평균적인 근속년 수 역시 학력수준에 따라 나뉘게 되면서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커지게 된 것이다.[38]

물론 이러한 격차의 확대에는 1990년대 이후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커진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9] 오늘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 안정적인 대기업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어려워졌으며, 직업획득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누리기는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40]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본 대기업의 평생고용과 연공체제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을지언정 여전히 유지되면서 새로운 세대의 기회를 축소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41] 이러한 발견을 종합하자면 젊은 세대로 올수록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은 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겠다.

3) 세대 간 사회이동

한 사회의 세대 간 사회이동 수준은 한 사회가 열려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평등이 보통 한 세대 내의 격차를 측정

37 양준호, 「'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 『일본비평』 4호, 2011; Mary Brinton, *Lost in Transition*

38 佐藤嘉倫, 「格差社会論と社会階層論」, 『季刊経済理論』, 2008.

39 다치바나키 도시야키, 『일본의 경제 격차』.

40 森口千晶, 「日本は「格差社会」になったのか: 比較経済史にみる日本の所得格差」; Shin Arita, "Educational Expansion and Labor Market Entry of New Graduates in Korea and Japan," *Korean Education in Changing Economic and Demographic Contexts* (edited by Hyunjoon Park and Kyung-keun Kim), Springer, 2014.

41 각주 38의 논문에서 Shin Arita는 한국의 대학졸업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일본 대학졸업자들에 비해 더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기존 취업자들의 직업안정성이 낮아 세대 간 순환율이 빠르다는 것이다.

하는 데 비해 사회이동은 한 세대 내의 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에 주목한다. 세대 간 사회이동은 흔히 두 유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절대적 이동(absolute mobility) 혹은 구조적 이동(structural mobility)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절대적 위치를 비교하는데 상승, 하강, 그리고 평행이동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된다.[42] 이러한 절대 이동은 직업구조 변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20세기 중반 이래 단기간에 (직업지위의 하단에 위치하는)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일본과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세대 간의 직업구조 차이는 보통 상승이동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상대적 이동(relative mobility)은 두 세대의 직업구조 차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가 특정 계급에 도달하는 정도가 서로 다른 부모의 계급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측정값(오즈비)을 계산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직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이동은 순환 이동(circular mobility) 혹은 순수 이동(pure mobil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통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서 보다 주목하는 것은 상대적 사회이동으로 한 국가 내에서 시기나 출생 코호트에 따라 사회이동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사회이동의 수준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관심 역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1992년에 출간된 *Constant Flux*와 그에 대한 반박으로 2004년에 출

42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다만 사회이동 연구에서는 직업을 몇 개의 범주로 묶은 계급(class)을 이용한 방식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급은 보통 5개에서 12개 정도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인 구성방식은 다양하나 전문/경영직, 사무직, 농민, 자영업자,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절대적 이동의 측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계급들을 다시 상-중-하의 세 범주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전문/경영직을 상층, 사무직과 숙련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중층, 농어민 및 비숙련 노동자를 하층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주는 국가의 맥락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Erikson과 Goldthorpe의 〈Constant Flux〉의 경우 (특히 유럽의 맥락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농민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이들의 평균적인 농업규모가 커졌음에 착안, 농민을 부모세대에는 하층으로 자녀세대에서는 중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된 *Social Mobility in Europe*을 들 수 있다. 앞의 책은 미국, 호주, 유럽 국가들과 일본의 사회이동을 분석한 뒤 산업화를 거치며 절대적 사회이동은 활발해지나 상대적 사회이동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발견에 대해 뒤의 책은 상대적 사회이동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활발해져 왔음을 지적한다.[43]

20세기에 급격한 사업화와 근대화를 거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구조이동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구조이동의 규모가 더욱 큰 경향이 있다.[44] 이들 국가들에서 산업화 초기 구조이동의 공통된 특성 중 하나는 부모세대에 있어 농민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며 이들의 자녀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을 채워 나간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1955년 41%였던 농민은 1965년에는 24%로 줄어들었고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같은 시기 육체노동자의 경우 크게 늘어났다. 화이트칼라 직종의 경우도 1955년엔 10%에 불과했으나 1995년에는 37%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구조적 이동은 산업화가 안정된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 들어 그 규모가 완연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계급으로의 유입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담당했던 농민층의 축소가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보다 안정화된 단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직업군(계급)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도 1995년과 2005년 SSM 조사를 비교했을 때 육체노동자 계급의 자체 충원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문서비스 직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45]

상대이동 분석과 관련하여 1955년 SSM자료의 분석결과는 일본이 서

43 Robert Erikson & John Goldthorpe, *Constant Flux*, University of Oxford, 1992; Richard Breen, *Social Mobility in Europe*, University of Oxford, 2004.

44 정인관 등, 2020,「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경제와 사회』127권.

45 Hiroshi Ishida & Satoshi Miwa, "Trends in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and Education in Japan."

구 국가들만큼 이동이 활발한 사회임을 보여 주고 있다.[46] 또한 1955년과 1965년 사이 상대적 이동성뿐만 아니라 계급별 개방성 지수 역시 증가하였다.[47] 그러나 1970년대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회이동을 분석한 *Constant Flux*의 연구결과는 비교국가적인 관점에서 일본 사회의 구조이동은 높은 편이나 상대적인 이동률은 비교의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에서 세대 간 상대적 이동 수준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48] 격차사회론의 주창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역시 1970년대 이후 계급재생산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49] 상대적 이동이 유의미한 변화 없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계급의 재생산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사토 도시키는 이러한 발견을 부모와 자녀의 계급(직업) 비교에 있어 서로 다른 연령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의한 왜곡된 결과로 본다. 세대 간 계급이동의 측정에 있어 부모 직업의 정보는 보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그들이 14~15세 무렵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문항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기 부모의 연령을 대략 40대로 본다면 부모의 40대 직업과 자녀의 20~30대 직업을 비교하는 것은 생애주기에서 직업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때 불완전한 비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토 도시키는 자녀의 도달직업의 연령을 40~59세로 놓고 출신계급별로 특정 계급에 대한 도달 가능성을 비교하며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50] 그는 특히 계급구분에서 최상층에 해당하는 상위 화이트칼

46 개방성 지수가 더 높을수록 사회이동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Junske Hara, "An Overview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Study in Japan: Towards a 'Mature' Society Perspective."

47 Ken'ichi Tominaga, "Studies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Japan: 1955-1967," *Rice University Studies* 56(4), 1970.

48 Hiroshi Ishida & Satoshi Miwa, "Trends in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and Education in Japan."

49 구체적으로 1955년에서 1965년 사이 상대적 이동률이 올라가고 이후 변화가 없다가 1985년 이래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치바나키 도시야키, 『일본의 경제 격차』.

50 기존의 사회이동 연구들은 일본의 경우 보통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버지의 계급과 자녀의 계급을 비교하는 접근을 취한다.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도 25세에서 30세 이상을 대상으

라 직종에 주목하는데 다른 계급에서 해당 계급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단카이세대(1936~1955년생)에 이르러 낮아지기 시작했음에 주목한다. 이전 세대와 달리 단카이세대에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위 화이트칼라 계급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세대를 넘어선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상류층의 폐쇄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열린 사회였으나 이후 학력과 직업획득의 경쟁체계가 포화되면서 계급재생산의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51]

이러한 관점은 출신계급의 영향력은 고등교육의 습득으로도 넘어설 수 없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이수를 통해 세대 간 계급의 상관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존의 발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52] 물론 교육수준이 동일한 개인의 성취에 미치는 출신배경의 직접적인 영향은 각각의 개념을 어떻게 변수화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53] 위의 발견은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띠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의 사회이동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높은 절대적 이동률을 보였다는 것과 상대적 이동의 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위계층으로의 폐쇄성 강화로 특징지어짐을 보여 주고 있다.[54] 물론 일본의 사회이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특히 서구국가들과의 비교—는 2000년대 이후로는 활발하지 않다. 이는 장기침체 이후 일본 사회의 역동성이 약화되면서 국제적인 비교의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국의 부상으로

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해당 연령에 이르면 개인의 직업이 성숙(maturity) 단계에 이르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30세 이상에도 넓은 범위에서의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샘플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연령을 지나치게 높일 경우 분석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51 사토 도시키, 『불평등 사회, 일본』.

52 Richard Breen & Walter Muller, *Education and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53 Yoshimichi Sato & Shin Arita, "Inequality in Educational Returns in Japan," Fabrizio Bernardi & Gabrielle Ballarino, eds., *Education, Occupation and Social Orig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54 Hiroshi Ishida, "Industrialization, Class Structure, and Social Mobility in Postwar Japa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4), 2001.

인해 아시아에 대한 연구관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 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3. 한일비교 연구, 그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탐색

불평등과 사회이동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농업인구의 감소로 특징지어지는 직업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였으며, 지위의 획득에 있어 학력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었다.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대학 그중에서도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은 치열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편이며, 비정규직의 문제 역시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두 나라 사이의 차이도 확연하다. 특히 대학교육 이수자의 절대적인 비율의 경우 한국은 일본을 압도한다.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들의 복합적인 작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교육기회 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에 있어 일본과 한국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비교 연구는 예상 외로 찾아보기 어렵다.[55]

한국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시기 혹은 출생 코호트에 따라 부모 학력에 따른 대학진학의 불평등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56]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1950년부터 1984년 출생자를 5년 단위 7개 코호트로 나눠 살펴봤을 때 상대적 사회이동이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오히려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57] 물

55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교육불평등과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리뷰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정인관 등, 2020,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56 최성수·이수빈,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권 4호, 2018.

57 Inkwan Chung & Hyunjoon Park,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론 이러한 발견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자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사회이동 경향에 있어 해당 연구 이전까지는 시기나 출생 코호트에 따라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론이었다. 이러한 결론은 사회이동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저하시켰는데, 비슷한 현상이 일본의 사회이동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경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방법론의 발전이나 자료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향이 보다 최근의 출생 코호트에 도달해서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불평등과 사회이동 경향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공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두 사회가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 남아 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동일한 질문을 일본 사회가 비교적 빨리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한국을 앞섰고, 한국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 발전궤적 속에서 단계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래 된 질문들, 이미 결론이 났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다시 꺼내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큰 까닭이 여기에 있다.

통계적 분석에 있어 샘플의 크기가 통계적 유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분석 가능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의 측정에 있어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사회계층과 사회이동의 전국조사(SSM)를 이용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해당 조사는 195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단위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현재 2005년 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SSM은 본인과 부모의 직업 및 학력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교육기회 불평등이나 세대 간 사회이동을 다루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직업, 고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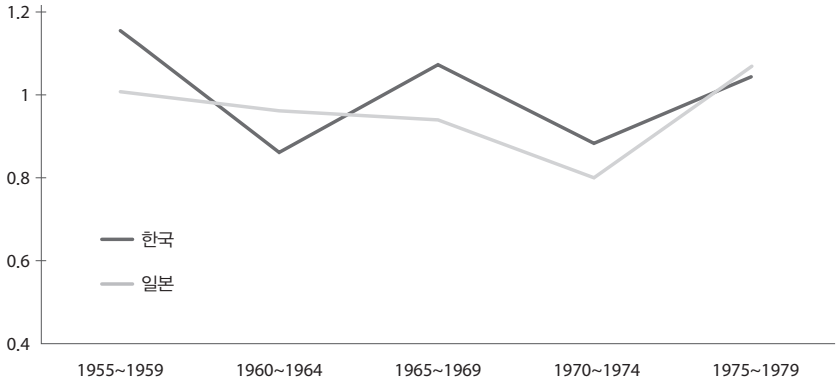
용상태, 교육수준, 자녀의 직업, 고용상태,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을 추동하는 기제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들도 다양한 편이다. 추가적으로 일본 종합 사회조사(JGSS: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의 경우 매번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9년, 2000~2003년, 2005, 2006, 2008, 2010, 그리고 2012년의 자료가 해당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58] SSM과 JGSS 자료를 합치면 하나의 자료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큰 샘플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의 SSM자료와 같이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된 방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다만 노동패널의 경우 1998년 이래 20년 넓게 반복되고 있는 자료이고 직업 및 학력에 대한 질문도 비교적 일관되게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나 사회이동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박현준과 정인관은 1998년 노동패널과 2018년 노동패널을 이용, 각 시기에 30~49세인 남성의 사회이동 수준이 20년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정인관과 박현준의 연구는 사회이동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5개의 다른 자료를 묶어 사용한 바 있다.[59] 해당 자료는 노동패널, 불평등과 공정성 조사(1995, 2000, 2005), 동아시아 사회조사(1996), 한국종합사회조사(2009), 그리고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2008~2011)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일 양국 간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평등과 사회이동의 심각성 정도를 국가 내 시기변화에 더해 국가 간 상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본문에 제시된 3개의 그림은 실제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이용한 분석의 일례를 보여 준다. 일본의 경우 SSM 1995와 2005, 그리고 JGSS(구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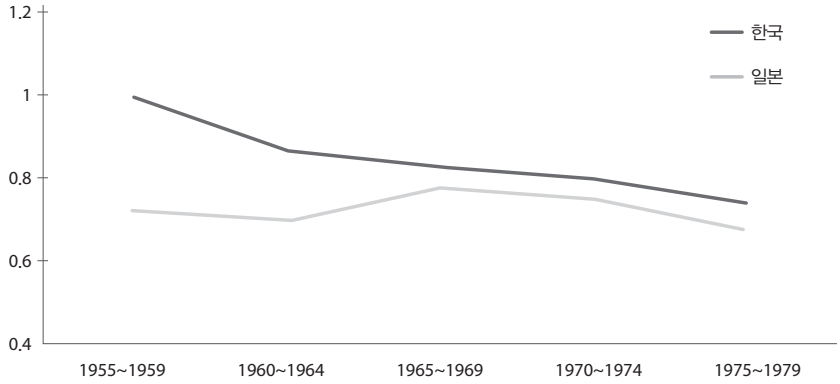
58 해당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부속 사회조사 및 데이터 아카이브 센터: https://csrda.iss.u-tokyo.ac.jp/.

59 박현준·정인관, 「20년 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30~49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55권 3호, 2021; Inkwan Chung and Hyunjoon Park,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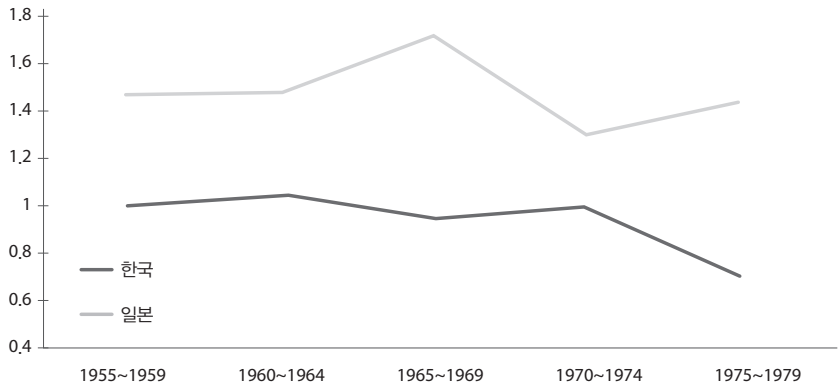


〈그림 1〉 출신계급과 교육기회의 상관관계

인 연도는 위에서 설명) 자료를, 한국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5개 자료를 모두 활용한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본문에서 언급한 오즈비를 활용한 로그선형분석을 이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로그선형분석 중 대수승법층효과 모형(Log-multiplicative Layer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예시이며 본고의 목적이 자료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나 방법론과 관련된 세부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항이 궁금한 독자들의 경우 저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하길 바란다. 양국 모두에서 비교적 충분한 샘플 규모를 구축할 수 있는 5년 단위의 5개 출생 코호트들에 있어 출신계급과 교육기회(〈그림 1〉), 교육성취와 도달계급(〈그림 2〉),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 간 상대적 이동수준(〈그림 3〉)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세로축의 지수는 대상이 된 두 모형 사이의 상대적 관계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1955~1959년 출생인 한국남성을 기준으로 그들의 관계수준을 1로 설정한 뒤 이 집단과 비교한 다른 집단들의 관계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고졸 미만,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중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고 계급은 EGP를 기반으로 한 6개 계급구분(전문서비스, 비육체 사무직, 자영업, 농민, 숙련노동자, 비숙련 노동자)을 사용하였다. 〈그림 1〉은 1955~1959년 출생자의 경우 일본 남성들이 한국 남성들에 비해 출신계급과 교육기회의 상관성이 더 높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는 이후 출생 코호트를 거치며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분석의 대상이



〈그림 2〉 교육수준과 도달계급의 상관관계



〈그림 3〉 부모계급과 자녀 도달계급의 상관관계

된 가장 최근 코호트(1975~1979년생)에서 둘 사이의 관계 정도는 양국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는 교육수준과 도달계급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는데 출생 코호트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둘 사이의 상관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그러한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은 부모계급과 자녀계급의 상관관계, 즉 세대 간 상대적 사회이동성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출생코호트에 걸쳐 세대 간 계급의 상관성(재생산)은 한국보다 일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최근 출생코호트에 이르러 더욱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간단히 제시한 분석결과는 본문에서 소개한 양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하겠다. 이렇듯 양국의 자료들은 변수 자체로만 봤을 때 충분히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비교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에 비해 한국의 대학 이수 비율은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이때 한국과 일본에서 대학 학위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상대적 교육수준(relative education)을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는 작업을 통해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계급구성에 있어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에 기반한 범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지적도 가능하다. 오늘날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EGP 계급분류의 경우 영국의 경험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계층구조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분류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서 자영업자의 위상이 과연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과 상대적으로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은 일본의 자영업은 그 속성상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른다.

4. 나가며: 몇 가지 남는 질문들

본고의 집필에 있어 필자는 일본의 교육격차와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를 개략적으로 훑어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보다 최근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의 흐름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지만 일본의 불평등과 사회이동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주제와 관련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계층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의 여성 취업자 비율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최근 들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이 가장의 역할을 맡는 정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오늘날 비혼인구 및 이혼율의 증대는 여성가장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빼놓고 불평등 및 사회이동의 흐름을 설명하기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이동 연구의 경우 아버지-아들 사이의 이동을 살펴보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 여성을 더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이동을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논의들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의 계층론은 주로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불평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점차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 따라서 점차 전체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층을 포함하는 계층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최근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한국에 있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셋째, 세대 간 이동에 있어 직업을 넘어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상태에 대한 분석을 보다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특히 국가 비교에 있어 직업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 지니는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서베이(survey)를 통해 소득과 자산의 자료를 얻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서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불평등 연구에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며 일본의 행정자료 이용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이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자: 2022. 1. 18. | 심사완료일자: 2022. 1. 24. | 게재확정일자: 2022. 2. 3.

姫野カオルコ,『彼女は頭が悪いから』, 文藝春秋, 2018.
福沢諭吉,『学問のすすめ』, 岩波書店, 1942.
二葉亭四迷,『浮雲』, 岩波文庫, 1941.
三島由紀夫,『青の時代』, 新潮社, 1950.
三島由紀夫,『天人五衰』, 新潮社, 1971.
三田紀房,『ドラゴン桜 フルカラー 版』1巻, kindle版, コルク, 전자책, 2021.
村田さやか,『コンビニ人間』, 文藝春秋, 2016.
山田昌弘,『希望格差社会』, ちくま文庫, 2007.
上野千鶴子,「平成31年度東京大学学部入学式 祝辞」, 2019. 4. 16. 도쿄대학홈페이지(최종검색일: 2021. 10. 25.)
https://www.u-tokyo.ac.jp/ja/about/president/b_message31_03.html(최종검색일: 2021. 10. 25.).
Utaisaku-web,「東大入試足切り点·合格最低点推移」, https://todai.info/juken/data/(최종검색일: 2021. 11. 30.).

언더클래스의 출현과 새로운 계급사회 | 하시모토 겐지

加藤圭木,「朝鮮植民地支配と公害: 戦時期の黄海道鳳山郡を中心に」,『史海』61巻, 2014.
橋本健二,『〈格差〉と〈階級〉の戦後史』, 河出書房新社, 2020.
厚生労働省,『職業安定業務統計』.
厚生労働省,『労働力調査』.
内閣府,『経済財政白書』, 2000.
Cingano, Federico,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2014.
Hashimoto, K., "Transformation of the class structure in contemporary Japan,"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Poulantzas, N., *Les Classes Sociales dans le Capitalisme Aujourd'hui*, Seuil, Fernbach, D.(tr.), 1978,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Verso, 1974.
Roemer, John E.,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Wright, E. O., *Class, Crisis and the State*, New Left Books, 1978.
Wright, E. O., *Class Structure and Income Determination*, Academic Press, 1979.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 정인관

김미란,「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교육사회학연구』20권 2호, 2010.
다치바나키 도시야키,『일본의 경제 격차』, 소화, 2001.
박현준·정인관,「20년 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30~49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한국사회학』55권 3호.
사토 도시키,『불평등 사회, 일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4.
양준호,「'격차사회' 일본과 빈곤층 재생산」,『일본비평』4호, 2011.
정인관·최성수·황선재·최율. 2020.「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과 교육 불평등: 2000년대 이후 경험

적 연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제와 사회』 127권.
최성수 · 이수빈, 「한국에서 교육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권 4호, 2018.
하라 준스케 · 세이야마 가즈오, 『일본의 사회계층』, 한울, 2002.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有田伸, 「比較を通じてみる東アジアの社会階層構造:職業がもたらす報酬格差と社会的不平等」, 『社会学評論』 59巻 4号, 2009.
豊永耕平, 「高等教育の大衆化と大学進学の不平等」, 『年報社会学論集』 33号, 2020.
森口千晶, 「日本は「格差社会」になったのか: 比較経済史にみる日本の所得格差」, 『経済研究』 68巻 2号, 2017.
佐藤嘉倫, 「格差社会論と社会階層論」, 『季刊経済理論』, 2008.
Arita, Shin, "Educational Expansion and Labor Market Entry of New Graduates in Korea and Japan," Hyunjoon Park & Kyung-keun Kim, eds., *Korean Education in Changing Economic and Demographic Contexts*, Springer, 2014.
Breen, Richard, *Social Mobility in Europe*, University of Oxford, 2004.
Breen, Richard & John Goldthorpe, "Explaining Educational Differentials: Towards a Formal Rational Action Theory," *Rational and Society* 9(3), 1997.
Breen, Richard & Walter Muller, *Education and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Breen, Richard, Ruud Luijkx, Walter Mueller, & Reinhard Pollak, "Nonpersistent Inequality i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Eight European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5), 2009.
Brinton, Mary, *Lost in Transition*, Cambridge, 2008.
Chung, Inkwan & Hyunjoon Park,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 2019.
Collins, Randall, *Credential Societ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Erikson, Robert & John Goldthorpe, *Constant Flux*, University of Oxford, 1992.
Fujihara, Sho & Hiroshi Ishida, "The Absolute and Relative Values of Education and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3, 2016.
Hara, Junske, "An Overview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Study in Japan: Towards a 'Mature' Society Perspective,"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9(1), 2011.
Ishida, Hiroshi, "Industrialization, Class Structure, and Social Mobility in Postwar Japa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2(4), 2001.
Ishida, Hiroshi, "Japan: Educational Expansion and Inequality to Access to Higher Education,"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Stanford, 2007.
Ishida, Hiroshi & Satoshi Miwa, "Trends in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 and Education in Japan," Hiroshi Ishida, ed.,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Late-Industrializing Countries*, The 2005 SSM Research Committee, 2008.

Jackson, Michelle, ed., *Determined to Succeed: Performance versus Choice in Educational Attainment*, Stanford, 2013.

Kariya, Takehiko,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to Work in Japan: Meritocracy through Institutional and Semi-Institutional Linkages," Yossi Shavit & Walter Muller, eds.,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Clarendon Press Oxford, 1998.

Kariya, Takehiko, *Education Reform and Social Class in Japan: The Emerging Incentive Divide*, Routledge, 2012.

Lipset, Seymour Martin & Reinhard Bendix,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Routledge, 2017.

Lucas, Samuel,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2001.

Raftery, Adrian & Michael Hout,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1921-75," *Sociology of Education* 66(1), 1993.

Sato, Yoshimichi, "Stability and Increasing Fluidity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al Stratification System," *Contemporary Japan* 22, 2010.

Sato, Yoshimichi & Shin Arita, "Inequality in Educational Returns in Japan," Fabrizio Bernardi & Gabrielle Ballarino, eds., *Education, Occupation and Social Origi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Edward Elgar Publishing, 2016.

Shavit, Yossi & Hans-Peter Blossfeld, *Persistent Inequality: Changing Educational Attainment in Thirteen Countries*, Westview Press, 1993.

Tominaga, Ken'ichi, "Studies of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Japan: 1955-1967," *Rice University Studies* 56(4), 1970.

Treiman, Donald & Kazuo Yamaguchi, "Trends in Educational Attainment in Japan," Yossi Shavit & Hans-Peter Blossfeld, eds., *Persistent Inequality*, Westview Press, 1993.

서평

여행자의 시선과 구도자의 마음이 교차하는 순례길에서: 『일본 재발견: 일본인의 성지를 걷다』(박규태, 2020) 를 읽고서 | 배관문

마루야마 마사오, 고재석 옮김, 『사상사의 방법과 대상』, 소화, 1997.

아즈마 히로키, 안천 옮김, 『관광객의 철학』, 리시올, 2020.

터너, 빅터, 장용규 옮김, 『상징의 숲』 1~2, 지식을만드는지식, 2020.

호리에 노리치카, 「파워스폿 체험의 현상학: 현세이익에서 심리이익으로」, 『일본비평』 18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

성장을 저해하고, 언더클래스의 확대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주제어: 격차사회, 격차 확대, 계급 구조, 언더클래스, 정치의식, 신자유주의

일본의 교육격차와 사회이동: 한일비교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연구사 리뷰 | 정인관

이 논문은 일본사회의 교육격차와 세대 간 사회이동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의 교육기회 불평등이 중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오늘날 이러한 경향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교육격차가 가져온 결과와 관련하여 일본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수준과 직업 사이의 상관성은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장기불황을 거치며 대학 졸업자와 저학력자 사이의 격차는 커지는 추세이다.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우 일본 사회는 높은 절대적 이동률과 안정적인 상대적 이동률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험이 한국보다 시기적으로 빠른 편이다.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사회이동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연구 수행 시 필요한 한일 양국의 자료를 검토하고 두 국가에서 새롭게 살펴봐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제시해 본다.

주제어: 일본, 사회이동,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사회이동과 사회계층의 전국조사(SSM)

연구논단

1880년대 일본 '문명개화'론의 행방:
사회진화론과 유니테리어니즘을 대하는 두 가지 사례 | 이새봄

본 논문은 메이지 초기 일본인의 서양 이해를 주도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 1832~1891)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메이지 10년대(1877~1886) 이후에 고민한 '문명개화'의 방법론에 대한 고찰한다. 그중 1880년대 후반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유니테리어니즘(Unitarianism)의 보급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대는 서양의 종교를 '문명개화' 실현의 방법으로 여기는 그들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해당 시기는 일본 지식인 사회에 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정치가들부터 종교인까지 수많은 엘리트층 인사들이 사회진화론의 열풍에 휩쓸렸다. 하지만 유니테리어니즘에 적극적인 동조를 보인 본 논문의 주인공 두 사람은 사회진화론에는 거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나카무라나 후쿠자와가 사회진화론에는 거리를 두고 유니테리어니즘의 가르침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사실은, 이들의 '문명개화' 이해의 표리를 이루는 두 측면이라고 본 논문은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데에는 그들의 학문적 · 사상적 기반에 있던 유학의 논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들과 같은 세대의 이른바 '일신이생'(一身二生)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인들 중에서 1890년대 이후 일본의 국체론(國體論)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데에도, 그들 사고의 기저에 있는 유학의 논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나카무라나 후쿠자와와 같은 세대의 지식인들

Educational Gap and Social Mobility in Japan:
A Review for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omparative Research

| CHUNG Inkwan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issues of the educational gap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n Japanese society by organizing past studies on these topics. Prior research has shown that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Japan persist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upper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and claims that this tendency may grow further are also gaining traction. In terms of the educational gaps, the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al status has traditionally been weak in Japanese culture, but following a long recession, the gap between college graduates and low-educated people is widening. Japanese society has a high absolute and consistent relative mobility rate when it comes to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Given that Korea and Japan have similar social and historical experiences, we expect that the comparison of the two countrie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Japanese instance, will provide insight into the solutions to Korea's current inequality and social mobility issues. In this regard, we evaluate the data available in Korea and Japan for comparative research, as well as some new problems to be investigated in the two nations.

• **Keywords**: Japan, social mobility, educational gap,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social mobility and social stratification survey (SSM)

ARTICLES

Japanese Discourse on Civilization in the1880's
: Two Cases of Attitude Toward Social Darwinism and Unitarianism

| LEE Saebom

This paper is about Nakamura Masanao and Fukuzawa Yukichi, who led the discourse on Japan's civilization in the early Meiji period. Following the early Meiji period, they continued to contemplate the method of realizing civilization in the 1880s. In this context, the focus of this paper will be on why they had such high expectations on Unitarianism. Another point of this paper's interest is how these two intellectuals reacted to Social Darwinism at the time. Social Darwinism was introduced to Japanese intellectuals in the 1880s and instantly it became the hottest issue. However, Nakamura and Fukuzawa barely showed any interest in Social Darwinism. Instead, one may say that they were more sympathetic to Unitarianism.

This paper considers the fact that Nakamura and Fukuzawa actively showed their sympathy to Unitarianism while keeping their distance from the Social Darwinism are two aspects of their understanding of civilization. And it is believed that the logic of Confucianism, which was based on their academic and ideological basis, acted as the main cause for these